

“환아들 생각하면 헌혈 게을리할 수 없어요”

●김규빈 광주 동아여고 주무관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상’

대한적십자사 수여...고등학생때 첫 헌혈 이후 총 300회

“앞으로도 폭넓은 봉사활동 통해 미래세대에 도움되고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 정년 60세까지 헌혈을 할 생각입니다.”

김규빈(35·사진) 광주 동아여자고등학교 주무관이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고명예대장은 헌혈 300회 이상을 해야 받을 수 있어 30대가 수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광주·전남권에서 30대 최고명예대상 수상자는 7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김 주무관은 광주진흥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7월 학교를 찾은 헌혈 버스에서 헌혈한 것을 시작으로 총 300회 참여했다. 채혈량

은 약 150ℓ로, 이는 성인 30명(체중 70kg 기준)의 혈액량과 같다.

말라리아 이슈로 헌혈이 불가했던 군 복무 시기를 제외하곤 보통 2주마다 한 번씩 헌혈에 참여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는 헌혈 수급이 절박하다는 소식을 듣고 소매를 가장 먼저 건어 붙이기도 했다.

앞서 김 주무관은 지난 2012년 백혈병을 앓던 친구에게 헌혈증 30여매를 양도했으며,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환아들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총 200매의 헌혈증을 전달했다. 2019년에는 조혈모세포(골수)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



그는 “세상에서 금과 피는 유일하게 인간이 복제하지 못 한다. 금도 수많은 연금술이 있지만 만들지 못했고, 피도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헌혈이 매우 가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주무관은 이 밖에 대학시절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2015년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우수상, 2019년 부여군 감사장을 수상하는 등 사회 각 계층에 이웃과 온정의 나눔을 실천했다.

그는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환아들을 생각하면 헌혈을 게을리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다회 헌혈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 횟수에 따라 ▲은장(30회) ▲금장(50회) ▲명예장(100회) ▲명예대상(200회) ▲최고명예대상(300회) 등의 유공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다미 기자

김보곤 피스텍코 대표 ‘올해의 금형인’ 수상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서 다양한 제품개발 등 공로

피스텍코㈜는 지난 22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서 열린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김보곤(사진 왼쪽) 대표가 ‘올해의 금형인’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대표는 다양한 제품 개발과 대외활동을 통해 금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피스텍코㈜는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전자 및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을 생산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전시회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 대표는 “금형산업의 미래를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융합에서 찾고 있다”며 “첨단 기법을 통해 금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산업을 새로운 기술로 통해 혁신할 계획”이라며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분야인 금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피스텍코㈜는 “인간 존중”을 경영 철학으로 삼아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제품 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기술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금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의 금형인’ 수상은 국내 금형산업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정은솔 기자



건강보험 광주전라제주본부, 해남서 의료·빨래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는 “최근 해남군 문내면 다목적회관에서 의료·세탁봉사, 농산물 구매 및 기증,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공단 정기적 이사장과 운영측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장 등은 하늬반창고 봉사단원(40여명), 의료진(10명) 등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으며 박지원 국회의원도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다.

의료봉사는 문내면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 치과(이동진료차량),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진료 및 약품 제공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빨래봉사차량을 활용해 거주 취약

계층의 이불(50채) 세탁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남지역 농산물(쌀·절임배추)을 구매했다.

구매한 해남 쌀(20kg 248포)은 공단 광주전라 제주본부와 결연을 맺은 아동복지시설(29곳), 천사무료급식소(2곳)에 기부하고, 절임배추(2천포기)는 연말에 김장김치를 담가 해남·진도·완도지역 독거노인 세대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기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금호평생교육관, 청렴·소통·공감의 날 ‘성료’

금호평생교육관은 25일 “본관 다목적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렴·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청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자신의 청렴도를 점검하고, 청렴 슬로건이 새겨진 미니타일 트레이를 제작하며 청렴의 가치를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금호평생교육관은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금호평생교육관 청춘들의 청렴 이야기’를 주제로 청렴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



한 청렴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신계룡 금호평생교육관 관장은 “이번 행사가 직원들의 청렴 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미 기자



김영록 지사, 건국대 학생들과 ‘동문 멘토링’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도청 장보고전망대에서 ‘찾아가는 동문 멘토링’을 위해 전남도를 찾은 건국대학교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로 개발을 위한 조언을 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동문 멘토링은 건국대 학생들이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는 선배의 일터를 방문해 향후 진로 개발을 위한 조언, 경험, 가치관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다.

이날 김영록 지사가 멘토로 나선 간담회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취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진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직자로서 생활과 마음가짐에 대해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며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 조언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멘토링이 학생들의 꿈과 잠재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목포시 하당동방위협, 어려운 이웃에 화장지 기부

목포시하당동방위협의회는 “최근 어려운이웃들을 위해 두루마리화장지30롤30개(6만원 상당)를 하당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하당동 방위협의회가 지난 10월 목포항구축제 노젓기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일부로 마련했다. 방위협의회는 매년 대회 수상 상금을 하당동에 기탁하고 있다. /목포=정혜선 기자

양기호 하당동방위협의회장은 “올해는 어렵게도 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대회 1등도 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례미 하당동장은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해당 물품을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한국경제통상학회 학술대회 참가



김일태(사진) 전남대 석좌교수는 오는 29~30일 경남대학교 창조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통상학회와 일본응용경제학회의 ‘2024년도 추계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한다.

이번 학회에서는 ‘글로벌 시대,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색’이란 주제에 대해 17개 세션에 걸쳐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 60여편을 발표한다.

김 석좌교수는 친환경 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 배출을 감소하는 전략을 다룬 논문 ‘Profitable Commitment to 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in the presence of an Eco-Industry’ (공저자 박철희 교수)를 발표한다.

논문은 정부 규제가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을 감소시키는 전략적 공약을 분석, 환경 문제가 심각할 때 자발적 배출량의 감축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전남대 석좌교수 겸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김일태 교수는 한국지역경제학회의 저널 ‘한국지역경제연구’의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호남인 기업가의 창업과 글로벌 기업가 정신’, ‘다문화사회와 한류문화’ 등 공동 저서를 출간했다. 한국대나무발전협회 회장, 전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민간유치위원회 위원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김다미 기자



담양봉산면 새마을부녀회, 일반찬 나눔 봉사

담양군 봉산면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봉산면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 100여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일반찬 나눔봉사를 실천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녀회 회원들은 오전부터 모여 장조림, 자반, 배추김치, 멸치볶음 등 4종의 일반찬을 정성스럽게 조리하고, 봉산면사무소 김신행 복지팀장과 면 생활지원사의 도움으로 직접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일반찬을 전달했다.

양두례 봉산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추운 겨울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일반찬 나눔 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전남관광재단, 4개국 MICE 관계자 팸투어

전남관광재단은 25일 “경남관광재단과 협력해 아시아 4개국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남해안권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과 인프라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등 4개국에서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을 담당하는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최근 4일 동안 여수시, 목포시, 경남 통영시를 방문했다.

여수 예술랜드와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근대역사관, 목포해관1897 등 전남 대표 문화재·관광지를 둘러보며 MICE 행사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관광 자원을 체험했다. /김재정 기자

결혼

▲진명선·김옥임씨 장남 현호(부안해양경찰서 수사과)군, 박천재·정경자씨 장녀 운형(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양=12월7일(토) 오후 1시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메리포ئم웨딩홀 지하1층 메이에르홀.